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본격화 사회적기업 1000곳 육성 시동

고용부, '유망기업 스텝업' 추진  
디딤돌·도약·성숙기 단계별 지원  
최대 3억까지 자금·멘토링 뒷받침  
운동기구·보드게임 등 상품화 속도

정부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스텝업 사업은 올해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다.

또 '도약기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165개 기업이 신청해 86개 기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주)좋은운동장은 장

〈유망기업 스텝업 사업〉

	디딤돌 지원	도약기 지원	성숙기 지원
지원목적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안착화	사업모델 고도화	협업을 통한 규모화
지원대상	창업팀 및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SVI 탁월·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최소 3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원규모	1,000개소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자부담 20%)	컨소시엄당 최대 2~3억 (자부담 50%)
주요내용	교육·멘토링·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연구개발·판로개척 등 사업모델 고도화	연구개발·판로개척 등 규모의 경제 달성

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주)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해 교육시장 내 입지 강화에 나선다.

안정화를 이룬 사회적기업 중 공동 브랜드 구축이나 협업을 통해 사회적비즈니스 확대를 추진하면 '성숙기 지원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9개 기업이 신청해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자부담 50%를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표 사례로 상상우리 등 6개 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외에도 (주)조나단컴퍼니는 농

촌지역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주)더즐거운교육은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주)코이로는 철도 관련굿즈 상품화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과 행복도시락은 지역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유망기업 스텝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기술·정책으로 장애인 고용 넓힌다

장애인고용공단, '2025 포럼'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부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년 국제장애인고용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인공지능(AI)과 장애' 주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홍석철 서울대 교수의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장애정책협의체, 국제기구 및 기업,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사회복지 전문가,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논의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각 기관과 기업, 지역 사회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결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공단, '일상 속 편안한 빛' 조성 추진

내달 13일까지 참여 지자체 공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빛공해 저감을 위한 생활실험실(리빙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대전 동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다.

이 설명회는 최근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증가하는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실험실 사업에 대한 소개가 목적이다. 각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 현장을 일종의 실험실로 삼아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전문가가 함께 빛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협력형 실증사업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대응 의무가 부여된 지자체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



환경부 관계자가 지난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빛공해 방지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자체를 대상으로 6월13일까지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빛공해 저감 보안등 ▲조도·전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기술을 적용한 리빙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기대, 전문화된 LMS로 직업훈련 혁신

〈학습관리시스템〉

12일 STEP 사업 설명회 개최  
전국 700개 기관서 서비스 지원  
참여기관 신청 30일까지 접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올해 상반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텝(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전 국민 대상 온라인 공공 교육훈련 플랫폼으로, 설명회에서는 스텝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의 주요 기능, 활용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된다.

이날 설명회 개최 열흘 전 이미 85개 기관 120여 명이 사전 접수를 마쳐 기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기업 등 700여곳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격훈련 콘텐츠와 함께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3700여개의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콘텐츠 제작 ▲스텝 라이브 세

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전문 온라인 강사 배정과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훈련(원격훈련과 집체훈련)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에 참여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은 30일까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스텝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이 문수 원장은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아세안, 미래 해상교통 협력 논의

해수부, ASEAN MTWG 회의 참석

해양수산부가 7~8일(현지시간) 이틀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MTWG는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의 산하 해상교통분야 실무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중·일 및 IMO,

UNESCA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 항만·해운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지난 제47차 MTWG 회의(2024년 9월)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의제로 채택된 '기후 변화 대응 항만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신규

협력 의제로 아세안 항만 간 무역 흐름과 물동량 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해상물류정책 협력 강화 방안도 제안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아세안은 주요 글로벌 환적항만이 밀집한 해상물류 거점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대상"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고순도 아연 제련' 기술, 해외유출 방지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개 신규 지정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건의 국가핵심

기술은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 ▲ 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 ▲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